정부, 군비행장 이전특별법·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의결

광주 군공항 이전·고흥 우주항공 클러스터 탄력

도심 주변에 있는 군용항공기지 소음 때문에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용 공항을 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광주 군공항 이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또한,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돼 고흥 우주항공 특화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일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통합당 김동철(광주 광산 갑)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해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포안에는 소음 피해 정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작전기지를 이전 대상으로 하며,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감경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전 후보지 선정과 주민투표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데다 '기부대 양여 방식'에 따른 지자체의 엄청난 이전 비용 부담 등이 만만치 않는 등 해결해야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국내 도심 주변 군 공항은 광주 광산구 군용비행장을 비롯한 대구 군공항인 'K2'와 수원의 수원비행장 등 8곳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민주통합당 김승남(고흥·보성)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해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 개정안 공포안'도 심의·의결됐다.

공포안에는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기업과 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된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고흥 우주항공 특화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남 의원은 "이미 고흥군은 항공센터와 우주센터 등 대규모 시설이 완료되었고, 산·학·연의 연계 기능을 갖추고 있어 우주항공 특화 클러스터화가 매우 유리하다"며 "이번 법안 공포에 따라 고흥이 동북아 우주항공 허브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우주관련 기관과 산업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있는 대전,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경남 사천, 발사장이 있는 고흥으로 분산된데다, 경남 진주와 사천이 우주항공 특화 클러스터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 자칫 이번 법안이 '남 좋은 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집행 중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특별한 손실을 끼친 경우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공포안'과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 등을 배치하도록 한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공포안'도 통과시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방 정가

나종천 "RDF시설 남구 건립 계획 동의 못해"

나종천(민주·남구 3) 광주시의원은 2일 "광주시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RDF(Refuse Derived Fuel·고체연료화) 생산시설을 남구에 건립하려는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열린 광주시의회 제216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광역위생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목재폐기물처리시설, 의료폐기물처리시설 등 주민 기피시설이 들어서는 남구에 대기환경오염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남구는 지역이미지가 훼손되고 있고 구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진선기, KTX 광주역 진입 대책마련 촉구

진선기(민주·북구 1) 광주시의원은 2일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지난 2월까지 예정돼 있던 KDI의 '광주역 연결선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하남역 분기철도를 통한 KTX 광주역 진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광주역 주변 도심 공동화 해소와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따른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지난 2011년 기준 철도이용객 현황을 보면 광주역은 196만명, 송정역은 180만명이 이용했고, KTX의 경우에도 광주역이 145만명인데 반해 송정역 이용객은 117만명에 그쳤다"며 "그런데도 광주시는 KTX 이용수요나 운행효과,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광주역을 KTX 광역경제권 개발정책에서 소외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정부 지방재정 정책 수정해야"

전남발전연 "재정 확충방안이 되레 지자체 힘들게 할 것"

박근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인상, 이전재원 축소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오히려 지자체의 재정운용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발전연구원 오병기 경제사회연구실장은 2일 발표한 '새 정부 지방재정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해 새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실장은 지방소비세 제도를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세율 인상을 추진하면 수도권과 소비지역에만 유리할 뿐 비수도권 지역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가 지방교부세와 상쇄관계에 있는 만큼 교부세 비중이 큰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이 높아지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또 분권교부세와 보통교부세 통합 후 사회복지사업 대부분을 지방 사무로 전환하면 지방 재정운용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 실장은 "재정은 국가가 지원하되 지자체가 자율 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재정 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남해안권을 성장잠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만 집중 지원하는 지역개발교부세 제도 도입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석가탑 47년만에 해체… 사리공 노출

국보 21호인 불국사 석가탑(삼층석탑)이 47년 만에 속살을 드러냈다.

석가탑 해체 수리 복원 사업을 진행 중인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석조문화재보수정비사업단은 2일 오후 2시 현장에서 2층 옥개석(屋蓋石. 지붕처럼 덮은 돌)을 해체하고 그 아래 몸돌인 탑신(塔身)의 사리를 모시기 위한 공간인 사리공(舍利孔)을 노출했다. 석가탑이 사리공(가로세로 각각 41㎝, 깊이 19㎝)을 노출하기는 1966년 이후 처음이다.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원년(740)에 김대성이 불국사를 발원하면서 세운 석가탑은 고려 초기인 현종 시대에 경주 일대를 덮친 지진으로 일부가 파괴되자 대대적으로 수리했으며, 이후 천년을 버티다 1966년 해체됐다.

2층 옥개석까지 해체한 석가탑은 상반기 중 기단까지 전면 해체된다.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반을 보충한 석가탑은 내년 3월 무렵에는 재조립에 들어가 6월 무렵에는 복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주시, 총인시설 담합업체 입찰제한·손해배상 나선다

4개업체 곧 징계

광주시가 총인처리시설 입찰 담합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지정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림산업㈜·금호산업㈜·코오롱글로벌㈜·현대건설㈜ 등 4개회사의 '총인처리시설 입찰업체 담합건'에 대한 의결서를 통보함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지정 등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총인시설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 등 4개 업체가 입찰가격을 예상 공사금액의 94~95% 범위 내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2011년 2월 스마트폰 어플 '사다리 타기'를 통해 각각 대림산업 94.44%, 현대건설 94.39%, 금호산업 94.33%, 코오롱글로벌 94.275% 등의 투찰율을 정한 뒤 같은 해 3월 사전에 담합한 투찰가격을 적어내 대림산업이 1위업체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대림산업 등 4개사에 과징금 68억원을 부과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광주시에 통보했다.

부정당업자가 되면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시는 또 담합으로 총인처리시설을 낙찰받은 대림산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광주 '행정배상공제' 시행

광주시가 공무착오 등 과실로 인한 시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행정배상공제' 제도를 시행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착오로 인해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때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광역시 최초로 '행정배상공제 제도'를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한국지방공제회에 연간 1억3000만원(올해 4~12월)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앞으로 광주시와 관련된 공무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시민은 보험청구 절차를 밟아 건당 최고 1억원, 연간 총 10억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나 다른 법령에 따라 배상이 가능한 경우는 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군사적 억지력 통해 北 도발 생각 못하게"

朴대통령, 첫 외교안보장관회의 주재

북 "영변 흑연감속로 재가동"

북한이 영변의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히는 등 한반도에 긴장이 연일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외교안보장관회의는 긴급 소집된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애초 이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려 했지만 이 일정을 3일로 미뤘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현재 우리의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튼튼한 안보가 전제돼야 국민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으며 새 정부의 국정기조인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통일기반 조성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도발시 강력하게 응징하는 것이 필수지만 그보다는 강력한 외교적·군사적 억지력을 통해 북한이 감히 도발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교안보부서들은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토대로 만반의 대응체제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에 따라 영변의 5MW급 흑연감속로를 정비해 재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원자력총국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현존 핵시설들이 용도를 병진로선에 맞게 조절변경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여기에는 우라늄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들과 함께 2007년 10월 6자회담 합의에 따라 가동을 중지하고 무력화하였던 5MW 흑연감속로를 재정비, 재가동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광주 동구 제-008호(동구 경제과 608-2504)

유)그랜드대부

최저이자 명품대출!

▸건물/상가 추가대출
▸아파트/주택 추가대출
▸전. 답/ 자동차 대출
▸명품중고 가방/시계 (보석,금,그림)

※자사대출/ 자유상환/ 수수료없음 ※
최저 월1%~월3% 최고 연39%이내

광주 동구 불로동 121번지 그랜드힐 116호
062)228-0114,010-4601-8942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급매매
두암타운사거리 대로변
대지 495㎡ (150평)
건물 2205㎡ (667평)

지하1층	주차장
1층	치킨호프
2층	PC방
3층	독서실
4층	학원
5층	골프존
6층	주택

매매가격 25억
대출 10억
보증금 4억3천
현금인수 10억 7천만

대출이자 공제후 월 1,000만원수익
사정상 급매(가격절충가능)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나주 혁신도시의 모든것 솔로몬과 함께 하세요!!

중심상업지역(위치최고·착한가격)
• 대지 1080㎡ - 매매가 24억5천
• 대지 1099㎡ - 매매가 24억2천
• 대지 705㎡ - 매매가 14억5천
• 대지 1200㎡ - 매매가 24억5천
• 대지 1080㎡ - 매매가 26억5천
외 다수물건

근린생활용지(위치최상·착한가격)
• 대지 688㎡ - 매매가 13억1천
• 대지 545㎡ - 매매가 10억7천
외다수물건

점포주택용지(약 100필지 보유)
단독주택용지(약 80필지 보유)
나주혁신도시 인근토지 구함

나주혁신도시·남평강변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상가건물◆
• 오치동 대지 330㎡ 건물 793㎡ 월수익 380만원 (추가임대수익예상) 매매가 7억8천(보 1억6천만, 융자 1억5천만)

◆상가매매◆
• 신용동 첨단2지구 110㎡ 월수익400만원 매매가 8억원 (보증금 5천만 융자4억원 이동통신점 입점예정)
• 신용동 첨단2지구 66㎡ 호반주출입구앞 아파트 주출입구위치 대로변 코너건물 핵심상권 매4억원

분양
• 용두동 첨단지이2차 11000여세대배후상권 주출입구 앞 1층 48㎡ (단지독점형상권) ㎡당544만원 매매가 2억6천만원
• 용두동 첨단지이2차 11000여세대배후상권 주출입구 앞 2층 47㎡ (단지독점형상권)㎡당 163만원(7천7백만원) -2구 좌분양가능

상가임대
• 신용동첨단2지구 호반주출입구앞 132㎡ 3층 보증금3000 /월140만원(피아노학원,미술학원,보습학원,영수학원등 학원밀집지역(예상구역)
• 신용동첨단2지구 호반주출입구앞 132㎡ 4층 보증금3000/월120만원(태권도학원,미술학원,보습학원,영수학원등 학원밀집지역 예상구역)

상가주택매매
• 산정동 하남2지구 1층점포3칸, 2층 투쓰리룸3개 3층복층안집 월수익550만 매7억3천만
• 월전동 룸16개 1층점포, 월수익650만 매6억원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010-8611-9009
(건축·분양대행·시행 상담)

중앙공인중개사

♣.부동산 구함
☆.아파트 밀집지역 병 의원 신축부지 약 250평 내외
☆.지하철 운천역 인근 광송간 대로변 사옥부지 150평 내외

♣.대지.전.답.임야
☆.광산구 동산동 학동마을 인근 전 5,400㎡(1,634평) 매매가 평당9만원
☆.서구 세하동 2차선 도로접 주거지역 답 12,522㎡(763평) 매매가 평당150만원
☆.광산구 송촌동 자연녹지 답2,988㎡(904평) 매매가 평당60만원

♣.전원주택지
☆.광산구 오운동97번 시내버스종점 전원주택지(전망좋음)전2,436㎡ (737평) 매매가 평당 27만원

충장로에 대형 건물 및 대형 매장 필요하신분 상담 환영합니다.

062-374-5945
010-3162-4989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